

# 정글속에서 노니는 듯 유유자적 ... 생기 넘치는 오랑우탄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오랑우탄 우리. 밀림처럼 우거진 숲속에 마치 오랑우탄이 사는 정글을 연상시키고 있다.



## 슬픈 동물원

<5> 동물복지 힘쓰는 대만 동물원

지난 6월 8일 대만 신주현(新竹縣) 류푸촌(六福村·육복촌·Leofoo Village Theme Park) 사파리 조식동물사. 사육사 전용차인 1t 화물차를 타고 사파리 안으로 들어가자 일록말 5마리가 무리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때마침 풀을 잔뜩 실은 1t 화물차가 사파리 안으로 들어오자 이 동물원의 자랑자 멸종위기종인 흰코뿔소(White Rhinoceros) 10여 마리가 몰려 들었다.

이 동물원은 흰코뿔소에 대한 뛰어난 사육 노하우와 번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흰코뿔소 무리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버펄로(Buffalo) 무리가 떼를 지어 걷고 있었다. 각 동물들이 무리 지어 사는 영역 주변엔 어김없이 철로가 깔려 있었다. 관람객들과 동물 간 질병감염과 보호 차원에서 사파리 관람용 증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차를 타고 초원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맹수 사파리에 들어서자 적재함에 높이 2.2m·지름 4m의 철창이 실린 2t 화물차가 눈에 띄었다. 관람객 9명을 실은 2t 화물차가 지나가자 곰 두 마리가 달려 들었다. 주변에선 호랑이와 사자가 포효하며 서서히 다가왔다.

관람객들은 보호 철창이 있는데도, 야생 그대로의 살기에 주눅이 든 듯한 관람객들은 몸을 잔뜩 움크렸다.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흡사하게 조성  
80종 1500마리 20ha서 여유롭게 생활**

**맹수 사파리 관람 6~7회 제한해 '보호'  
동물들 야생 살아있고 정형 행동 없어**

초식 사파리는 하루 관람객 수 제한이 없지만 맹수 사파리 출입은 하루 6~7회로 제한돼 있다. 9인승 기준, 하루 최대 63명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람객들의 출입이 잦을 경우 맹수들이 야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류푸촌엔 80종·1500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다. 초식·맹수·원숭이로 구분돼 있으며 면적만 20ha다.

이 동물원의 특징은 각 동물의 서식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광활한 사파리 내에서 자연 서식지에 있는 모습과 가까운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희귀동물인 흰코뿔소 번식에도 꾸준히 성공, 흰코뿔소 부분에선 단연 세계 최고로 자부할 만큼 차별화 돼 있는 점이 이 동물원만의 장점이다.

앞서 지난 6월 6일 오후 1시10분께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말레이 맥(Malayan Tapir·포유강 기제목 말과) 방사장은 마치 습한 산림 속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웅장했다. 1652.8㎡(500평) 규모의 우리에선 말레이 맥 한 쌍과 짝는 사슴(barking deer) 한쌍이 눈에 띄었다.

바닥은 통나무와 잔나무 가지·흙이 놓여 있었다. 인가적

이 들리면 지름 2m의 통나무 또는 밀림처럼 우거진 숲속으로 쭉쭉 몸을 숨겼다. 이들 동물의 몸놀림은 야생의 그것들과 비슷했다. 말레이 맥 우리 옆엔 1157.0㎡(350평) 규모의 오랑우탄 우리도 있었다.

우리엔 마치 정글 속을 연상케 했다. 동물원측은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보존했다. 특히 오랑우탄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길 좋아하는 점을 감안, 나무 타위가 설치돼 있었다. 오랑우탄이 4~5m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 앉아 관람객들을 쳐다봤다. 녀석들의 표정이나 눈빛에선 생기가 넘쳐났다.

말레이 맥과 오랑우탄 우리를 거쳐 정글 속 산책로를 따라 걷자, 치타·하마·호랑이 우리가 잇따라 나타났다. 국내 동물원에선 철창 속에 갇혀 콘크리트 바닥에 배를 깔고 자는 것만 무수히 봐왔던 호랑이·치타가 2~3m 거리에서 눈을 반짝거리고 포효를 하며 긴장시켰다.

물론 그들과 관람객 사이에는 넘치 못할 고랑이 있었다. 설치된 창살도 관람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었다.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보육동물 수는 300여 종·3000마리. 이 동물원의 특징은 수의사(8명)·사육사(100명)들이 동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에 따라 세 가지 동물원으로 나눈 뒤 관리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상 우리가 없는데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연평균 600만명의 내·외국인이 동물원을 찾고 있다는 게 시립동물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동물원의 공통점은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이 아예 없고 미니호스 등과 같은 교잡종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년 전부터 동물원을 최대한 자연생태에 가깝게 꾸미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동물원에 사는 일부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직까지도 국내 동물원 상당수가 단순한 눈요기 관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이들 동물원들은 관람객의 재미·교육도 중시한다. 각 동물 우리마다 철창이 없다고 해서 녀석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동물의 습성을 연구·설계한 탓에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각 우리엔 각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맞는 시설물(동물 행동풍부화)이 설치돼 있는데, 관람객들은 이들 시설물을 통해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다.

대만 류푸촌 동물원 수의사 창첸양씨는 "시설물만 개선한다고 해서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람객들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기관과 시민 간의 지지도·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물원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만 글·사진=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말레이 맥 우리. 관람객들이 전망대에서 말레이 맥을 관람하고 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